

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



왜 지금 침례받지 못하는 거죠?

제시카 라슨
실화에 근거함

“예수께서 하셨듯이 침례받는 것 ...
그것이 내가 바라는 일.”(Children's
Songbook, 104)

“오 늘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
오 배울 거예요.” 리드 자매님이
말씀하셨다. “침례라는 노래죠. 모두
눈을 감고 노래를 들어 보세요.”

나는 눈을 감고 편안히 의자에
기대 앉았다. 반주자가 노래 멜로디를
연주하기 시작했고, 그 선율은

마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고
아름다웠다. 리드 자매님이 노래를
부르기 시작하셨다. “예수님 오래
전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
강에서 침수로써 침례받으셨다네.”

내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
느껴졌다. 엄마가 내 눈물을 볼까 봐
얼른 눈물을 훔치려 했지만, 이미 늦어
버렸다. 엄마는 초등학교 회장님이셨고,
항상 작은 것도 금방 알아차리셨다.

엄마는 나를 보며 약간 슬픈
눈빛으로 웃고 계셨다. 내가 왜
우는지 엄마는 알고 계셨다.

교회가 끝나고 집으로
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생 줄리는
그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. 나는
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.

“나랑 색칠공부 할래?” 집에
도착하자 줄리가 내게 물었다.

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 “나중에.
지금은 먼저 할 일이 있거든.”

거실에는 아빠가 계셨다. 아빠는
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
무릎에 책을 펴 놓고 계셨다. 아빠는

엄마랑 줄리랑 내가 교회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조용히 책을
읽는 것을 좋아하셨다.

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. “아빠?” 내가 말했다. “저
침례받아도 돼요?”

아빠는 책을 덮으시고는 옆에 나를 앉히셨다.

“새디, 이 얘기는 이미 전에 끝냈잖니. 아직은 안 돼.” 아빠가
말했다.

“하지만 저는 너무 받고 싶은걸요!” 내가 말했다. “몇 달 전에
여덟 살도 됐고, 침례에 대해 생각도 많이 했어요. 저는 교회가
참되다고 생각해요. 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, 점점 더 침례를
받고 싶어져요.”

아빠는 고개를 저었다. “아빠 생각에는 아직 네가 그런
중요한 결정을 내릴 나이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. 하지만
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알지?”

“그건 알아요.” 내가 말했다. 아빠가 나를 생각해서
그러신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. 그저 아빠는 내가 그런 선택을
내릴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.

나는 방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. 그리고는
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다. “하나님 아버지, 저는 정말
침례를 받고 싶어요. 아빠가 다 이해하게 해 주세요.”

기도가 끝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, 나는 계속
무릎을 꿇고 기다렸다. 오늘 배웠던 “침례”라는 노래 멜로디가
마음속에 떠올랐다.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.
대신, 가슴속이 편안해졌다.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
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. 비록 내가 아직은 침례받을 수
없다고 해도 말이다.

나는 계속 기도하고 초등학교에 참석할 수 있다. 동생 줄리에게
모범이 되고, 다음 주 금식 주에 엄마에게 나를 위해 금식해
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.

저녁을 먹으러 내려왔을 때도 그 평안한 마음은 계속되었다.
언제인지는 모르지만, 분명 나는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. 그날은
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.

그로부터 6개월 후, 아홉 살 생일 이틀 전, 새디의 아빠는
새디가 침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. ■

글쓴이는 미국 텍사스 주에 산다.



만일 침례받기 위해 기다려야만 한다면

- 복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운다.
- 침례식에 참석하고 여러분이 침례받게 될 날을
고대한다.
-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권 축복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.
-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
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
기억한다.